

[보도자료]

제13회 ‘임종국상’ 시상식

학술부문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언론부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3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10, 사회·언론 부문 6, 특별상 2 등 18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9월 16일 예심을 거쳐 10월 7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린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를, **언론부문에는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을, 특별상에 **고 노동은 교수**를 제13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는,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피해자와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 등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 동원 책임을 추적하여 주목해야 할 성과들을 내놓은 연구자이자 한일과거사 청산의 현장에서 맹렬히 활동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2016년에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를 날카롭게 비판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을 저술함으로써 한일양국의 역사수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상저서인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일본은 물론 한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였던 재일조선인의 생존 과정을 치밀하게 논구한 역작이다. 이 책은 그 자신 조선적 동포 3세이기도 한 경계인으로서 저자가 ‘재일’의 정체성을 깊이 고뇌하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고 분석한 위에 지방사와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이 마주한 시대상황까지 조명함으로써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영환 교수는 한국 정부에 의한 불법적 인권침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리쓰메이칸대학 코

리아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있던 2009년 6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식민지기 재일 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단체활동의 전개> 한일공동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초청받았다가 이명박 정부의 전례를 무시한 악의적인 조치로 입국이 불허되었으며, 지난한 법적 투쟁에 들어갔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하였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불허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8년에야 비로소 다시 입국이 허용되는 고난을 겪었다.



언론부문 수상자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은, 2019년 한 해 내내 독립운동과 반민족행위에 관한 기획보도를 계속함으로써,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역사의식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3·1운동 계보도와 임정 초기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희귀자료를 발굴 소개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또 백산무역주식회사와 경주 지역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 등 경주 최부자의 독립운동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가진 자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상자인 <밀정> 2부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과 중국의 기밀문서 수만 장을 입수 분석하여, 밀정 혐의자 895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그간 언설로만 전해져 오던 '밀정'의 실체와 죄상을 처음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서도 밀정 또는 친일 혐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와 방대한 사료 검증을 통해 학계에서도 사각지대에 가까운 분야를 집중 탐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평가받았다.



특별상 수상자인 고 노동은 교수는 '민족음악'의 주창자이자 실천가였다. 고인은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관한 30여 권의 저서와 400여 편의 논문을 남겼으며 특히 향일음악과 친일음악 연구에 선구적 업적을 쌓았다. 방대한 근현대 음악사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친일음악론』 『향일음악 330곡집』 『인물로 본 한국근현대음악사』 등 이 분야의 개척적 연구로 학문적 토대를 놓았다.

고인은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실천운동에서도 후학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음악 분야 집필을 책임졌으며, 음악을 통한 분단극복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 전국 어디라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 '민족음악'을 논하고 노래했다.

지난 22일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시상식은 10월 31일(목)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제13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19년 10월 31일(금) 오후 7시

곳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수상자 약력

학술부문 : 정영환

>> 주요경력

- 1980년 11월 일본 지바현에서 출생.
- 2003년 3월 메이지가쿠인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 2005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 2010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사회학박사)

- 2009년 4월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전임연구원 (~2010년 3월)
- 2010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전임강사 (~2013년 3월)
- 2013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준교수 (2019년 3월)
- 2019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교수 (~ 현재)

>> 저서

- 『朝鮮獨立への隘路 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学出版局, 2013
- 『忘却のための「和解」『帝国の慰安婦』と日本の責任』, 世織書房, 2016 (임경화 옮김,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푸른역사, 2016)

언론부문 :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 주요경력

- 2018년 4월 KBS 탐사보도부 '탐사K' 출범
 - 2005년 만들어진 KBS 탐사보도부는 대한민국 탐사저널리즘 초기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선보였지만 2010년 이후 본격화된 정치권력의 압박과 사내 비민주적 리더십 등으로 취재 활동이 크게 위축됨.
 - 장기간 계속된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으로 새로운 보도 체제가 출범한 뒤 기존 탐사보도부를 확대 개편한 '탐사K' 조직.
- 2018년 5월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 2018년 7월 MB정부 국가정보원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 단독 입수 보도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상
- 2018년 8월 2012년 대선 여야 캠프 SNS 여론조작 확인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8년 한국조사보도상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기자클럽 3분기 뉴스부문 보도상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탐사부문 수상
- 2018년 8월 예산 114억 원 쓴 국회의원 연구단체...보고서는 표절과 짜깁기 보도
 -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 2018년 9월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 인사검증 연속 보도
- 2018년 11월 “돈 주면 1인실로” 교도소 독방거래 연속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19년 2월 현대가 자유항공 탈취 40년사 보도
- 2019년 3월 3.1운동 계보도 최초 발굴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검증 보도
- 2019년 4월 상해임시정부 초기 단체사진 단독 발굴 보도
- 2019년 4월 삼성물산 견적서 부풀리기...사라진 혈세 100억 원
- 2019년 5월 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 연속 보도
- 2019년 5월 아시아경제 회장 배임·성접대 의혹 연속 보도
 - 방송기자클럽 2분기 기획보도부문 수상
- 2019년 6월 임시정부 비밀 자금줄 ‘최부잣집’ 사료 발굴 보도
- 2019년 8월 <밀정> 2부작 방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한국영상기자협회 이달의 촬영기자상
 방송기자클럽 3분기 기획보도 부문 수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 2019년 9월 베트남산 바이러스 새우...뚫린 검역망 연속 보도
- 2019년 9월 한일관계 갈등...‘20년 준비한 소재 강국’의 실상 연속 보도
- 2019년 10월 죽음 부른 통증 주사 고발 보도

특별상 : 고 노동은

>> 주요경력

- 1946 전북 익산 출생
 1980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1981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1986 한국음악학학회 회장
 1990 민족음악연구회 회장
 1990 민족음악협의회 초대 의장
 199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1998 윤이상통일음악회 추진위원장
 1999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

1999 아시아태평양페스티벌 한국측 총감독
200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2005 광주정음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 지영희전국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국제학술대회 음악총감독

>> 연구업적

『한국영아음악연구』
『한국민족음악현단계』
『민족음악론』
『김순남의 삶과 음악』
『한국근대음악사1』
『노동은의 음악상자』
『노동은의 두 번째 음악사장』
『한국음악론』
『정음성의 삶과 예술』
『노동은의 세 번째 음악상자』
『한국근대음악사론』
『한국근대음악사론』
『항일음악 330곡집』
「개화기 음악연구 I」
「음악기학(音樂氣學)」
「한국음악의 제3전환기 선언」
「해방이후 남북한의 창작품의 현황」
「지영희의 삶과 예술」

>> 수상내역

1995 단재학술상
2004 우리 음악계를 움직이는 30인
2004 한국의 미래를 여는 100인
2011 옥조근정훈장
2019 은관문화훈장

역대 수상자

제1회 2005.11.11.

학술부문 김경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 조사팀장)

수상저서 : 『일제강점기 인명록 I - 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

언론부문 정길화(문화방송 시사교양국 특임 1CP)

수상작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친일파〉 3부작

사회부문 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대표, 친일청산시민행동연대(준) 준비위원장)

주요활동 : 경남지역 친일청산 운동

제2회 2006.11.9.

학술부문 허수열(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교수)

수상저서 : 『개발없는 개발 -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언론부문 이은희(Q채널/히스토리채널 사업부장 겸 편성팀장)

수상작 : 〈일제문화잔재 60년〉 8부작

사회부문 최용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주요활동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주도

제3회 2007.11.9.

학술부문 이재명(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수상저서 : 『근대 희곡·시나리오선집』 전9권

언론부문 길윤형(한겨레21 기자)

주요활동 : 야스쿠니신사 문제 심층 보도

제4회 2010.11.10.

학술부문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상저서 :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회부문 야노 히데키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사무국장)

주요활동 :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전후보상' 운동

제5회 2011.11.11.

학술부문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수상저서 : 『국가범죄론』

사회부문 이민석(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 고문변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자문변호사)

주요활동 : 한일과거사와 친일문제 관련 소송지원

제6회 2012.11.6.

학술부문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수상저서 : 『식민권력과 종교』

사회부문 유현미(대전대학교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주요활동 : 항일드라마 <각시탈> 집필

특별상 김정섭(향토사학자)

주요활동 : 근대사 관련 사료수집과 자료집 발간

제7회 2013.11.11.

학술부문 박찬승(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수상저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회부문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주요활동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운동 및 피해자와 유족 소송지원

제8회 2014.11.12.

학술부문 김효순(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수상저서 : 『간도특설대-1930년대 만주, 조선인으로 구성된 친일토벌부대』

사회부문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주요활동 :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와 유족의 대일 소송 지원

제9회 2015.11.11.

언론부문 뉴스타파

주요활동 : <친일과 망각> 4부작-친일파 후손들을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층 보도

제10회 2016.11.11.

학술부문 김상숙(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수상저서 : 『10월 항쟁-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사회부문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주요활동 : 과거사, 노동, 인권 분야 변호와 관련 단체 지원 활동

제11회 2017.11.10.

학술부문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수상저서 :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사회부문 한상권(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주요활동 : 친일·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실천운동

제12회 2018.11.9.

학술부문 신기철(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수상저서 :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언론부문 원희복(경향신문 출판부국장)
주요활동 : 민주화, 역사정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속적인 언론·저술 활동